

중-한 송기음 대비 小考

조 결
북경대학

1. 머리말

중-한 양국이 정치, 경제 방면에서 끊임없이 왕래함에 따라, 양국 국민들의 문화적인 교류도 나날이 긴밀해졌으며 이에 따라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언어는 민족과 국가간을 밀접하게 해 주는 우호 사절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중한 양국에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미래의 중한 합작 관계에 빛을 던져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고이래로 중한 양국이 끊임없이 서로 교류해 왔으나, 서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과 각기 다른 어족에 속한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서로 왕래도 뜸해졌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방향을 달리해 왔다는 점 때문에 원래 달랐던 언어에 더욱 이질적인 요소를 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막 삼년이라는 외교관계를 맺은 양국의 국민들이 언어에 있어서 맞닥들이게 되는 첫번째 문제는 양국 언어에 있어서의 표준어 문제가 된다. 중한 언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모국어와 상대 언어의 발음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인식시키고, 교사에게 명확하게 배우게 한 다음, 비로소 자각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연후에야 상대어에 대한 효과적 학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 송기음 방면에 관한 초보적인 관찰과 탐구이다. 현대 언어학의 이론과 비교 언어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한 파열음과 파찰음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어휘들을 예로 하여 분석하여 양국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언어의 송기음의 차이를 구별하고 상대어의 발음에 있어서의 난점도 명확하게 파악하여 상대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문에서 더욱 집중적이고 분명하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단어의 첫음절 初聲을 예로 채택하였다. 정식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대 중국어와 현재 한국어의 자음표를 열거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본문은 파열음과 파찰음의 송기 여부 및 긴장 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것이다. 중한 양국 언어의 자음표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방법의 발음이 양국 언어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초보적인 지식은 쉽게 알 수 있다. 파열음과 파찰음이 중국어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이원적 대립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긴장과 이완, 송기라는 삼원적 대립을 이룬다. 그렇지만 각각의 확실한 음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교재 편집자들 역시 단지 언어 내부의 소리를 정해 놓았을 뿐, 음소의 정확한 발음 특징은 완전히 밝혀놓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양국 언어의 이와 같은 음소를 비교할 때, 특히 구별 특징과 비구별 특징을 공히 인식할 때 비로소 양국 교과서에서 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양국 언어의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간섭으로 목적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없도록 하는 관건이 되기도 하다.

현대 중국어 자음표①

			雙脣音	脣齒音	舌尖音	舌根音	舌面音	舌尖後音	舌尖前音
塞音	清	不送氣	b		d	g			
		送氣	p		t	k			
塞擦音	清	不送氣					j	zh	z
		送氣					q	ch	c
擦音	清			f		h	x	sh	s
	濁							r	
鼻音	濁		m		n				
邊音	濁				l				

현대 한국어 자음표②

위 발음방법		발음부	雙脣音	舌			喉音
				舌尖	前舌	後舌	
破裂音	平音	ㄷ	ㅌ	ㄷ		ㄹ	
	된소리	ㅌ	ㄷ			ㄹ	
	送氣音	ㄷ	ㅌ			ㄹ	
摩擦音	平音				ㅅ		ㅎ
	된소리				ㅆ		
破擦音	平音				ㅅ		
	된소리				ㅆ		
	送氣音				ㅅ		
鼻音			ㅁ	ㄴ		ㅇ	
邊(閃)音					ㄹ		

2. 중국어 불송기 파열음 파찰음의 순한 소리와 된소리 특징

현대 중국어의 불송기 파열음과 파찰음은 모두 12가지인데,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설첨후음인 zh, ch 를 제외하면 쌍순음 b[p], p[ph], 설첨음인 d[t], t[th]와 설근음인 g[k], k[kh], 설면음 j[tc], q[tch], 설첨전음 z[ts], c[tsh] 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들은 송기와

불송기가 각각 짝을 이루고 있으며 음위에 있어서는 구별 특징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와 같은 구별 특징에 매우 민감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파열음과 파찰음의 음가가 순한 소리와 된소리를 구별해주는 수반특징(즉 비구별특징)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어의 순한 소리와 된소리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인이 중국어를 발음할 때, 중국어 불송기 및 송기의 파열음과 파찰음에 있어서의 순한 소리와 된소리라는 수반특징을 쉽게 판별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陽平	陰平	上聲	去聲
bao	包	薄	寶	報
da	塔	達	打	大
guo	鍋	國	果	過
jian	交	嚼	脚	叫
zao	糟	鑿	早	造

중국어의 陰平과 上聲字를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순한 소리로 읽고, 陽平과 去聲字는 일반적으로 된소리로 읽는다. 그 이유는 한국어라는 모국어의 된소리와 순한 소리가 음위의 구별특징이 되고, 이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중국인들은 중국어를 발음할 때 오히려 주의하지 않는 수반특징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구별은 소리의 규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양평의 음가는 평이하면서 길고, 상성은 높낮이가 있으면서 길어서 발음할 때 성대가 쉽게 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발음하는 소리가 순한 소리가 되도록 한다. 또한 양평의 음가는 짧으면서도 곧바로 올라가고 거성은 곧바로 떨어지는 소리이므로, 이와 같은 올라가는 소리와 내려가는 소리는 발음할 때 성대가 쉬이 긴장하도록 하여 발음하는 소리가 된소리가 되도록 한다. 즉 중국어의 불송기 파열음과 파찰음은 실질적으로는 성조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는 순한 소리와 된소리 두 가지 음의 구분인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리의 규칙을 이해하게 되면, 중국어의 ‘寶島’의 ‘寶’와 ‘報告’의 ‘報’中, ‘寶’[pau214]와 ‘報’[pao51]의 자음 음가가 명확하게 차이가 남을 다시 지적할 수 있다③. 또한 중국어의 ‘但’은 비록 중국어 병음 표기에서는 dàn[t'an51]으로 표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t]가 긴장음인 [t']로 소리난다. 한국어는 이 한자음들을 빌려갈 때에 한국어에 성조가 없다는 이유로 ‘단’을 ‘平音’(즉 순한 소리)으로 빌려갔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단’의 자음을 [t'an]이라는 순한 소리이자 약한 송기음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여기에 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두 언어에서 표음기본이 서로 비슷한 자음들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양국의 언어학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인 것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이와 같은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중국어의 불송기 파열음과 파찰음을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寶島’[p'au211 t'au214], ‘孤

單'[k'u55 t'an55], '糟糕'[ts'au55 k'au55], '脚'[tɕ'iau214] 등이다. 한국인들이 이와 같이 발음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의 문제인지를 찾아내지는 못하는 것이다.

3. 한국어 순한 소리의 파열음 피찰음의 약송기 특징

중국의 한국어 교과서에는 한국어의 순한 소리(평음)를 불송기음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중국어의 불송기와 송기의 대립으로 한국어의 순한 소리와 송기음을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어의 순한 소리와 중국어의 불송기음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약송기음에 결코 민감하지 못해서 한국어의 교과서에조차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음성학 논저에서도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밥'을 한국음학계에서는 [bab]으로, '돼지'를 [dɕɕji]으로, '북'을 [bug]으로 표기하는 것 등이다④. 그 중 []만이 유성음의 무성음화를 표기하고 있을 뿐, 약송기에 대한 강조는 없다. 순한 소리 가운데의 약송기 음가에 대한 무관심은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발음상의 곤란을 초래하여 중국인이 모국어의 불송기와 송기음으로 한국어의 순한 소리와 송기음에 대응시키도록 한다. 또한 중국어의 불송기음은 성조의 차이에 따라 순한 소리와 된소리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어의 순한 소리를 발음할 때, 종종 된소리를 내거나 혹은 불송기음을 내게 되는 약점이 생기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중국인의 한국어 발음을 가리켜 표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사실 한국어의 순한 소리와 송기음은 불송기와 송기의 대립이 아니라, 약송기와 강송기의 대립이다. 이는 중국어의 불송기음(즉 중국어에서 음평과 상성을 발음할 때와 같은 불송기음)과 유사한 것으로, 발음할 때 강조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봉천동'의 '봉'을 발음할 때, 듣는 사람이 분명히 듣지 못하여 다시 천천히 말하게 한다면 '봉[bɔŋ]'이라고 발음한다. 어떤 경우에는 순한 소리와 송기음을 혼동하기도 하여 '밭'과 '팔'의 구분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밭[bar]과 팔[bhar]로 대비하지만, 실질적인 회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파열음과 파찰음의 순한 소리가 대부분 약송기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자.

갔어요	같아요
바빠요	보고 싶어요
비가	부산
덥군요	급해요
정말	가지고
밥	잘
정각	계끔
대개	짧어보입니다

택이지요	경기
걸리다	값
재작년	갑시다
결혼했어요	전철
다구요	받았군요
교통	담배
답장	졸업
고속버스	광주
작정이다	돈
거기	방학
박선생	잠깐
전동	갈아타다
저기	닭았어요
바람	비빔밥

이상의 단어나 어휘들의 첫음절 자음은 모두 필자가 친히 구두 조사를 하였거나 여러 방면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의 대화를 직접 들은 것들로, 모두 약송기음이다.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약송기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완전 불송기 된소리와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된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촉급하고도 힘이 있으며, 순한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느슨하고도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강송기 기류(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는 쉽게 새어버리게 된다. 이런 까닭에 약송기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 순한 소리를 불송기로 내면서 된소리와 대응시켜 발음한다면 구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이런 이유로 만약 조금이라도 송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은 된소리를 발음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된소리의 발음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음들을 불송기음이나 된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필자도 중국인인 관계로 이상의 한국어 발음들을 중국어의 불송기 자음처럼 발음하곤 하는데,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서는 필자가 이미 상당히 체득하였으며, 어감 역시 예민해졌다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한국어나 중국어를 전공하는 교수들과 상의해 보았는데, 혹자는 이를 “작은 송기[小送氣]”라 하고⁵⁾, 어떤 이는 “약간의 송기[一点点送氣]”라 하였다⁶⁾. 이들은 모두 필자의 판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언제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가’와 ‘까’가 완전한 순한 소리와 된소리의 대응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약송기와 불송기의 구별이라 하는 것이 옳다. 중국인들은 한국어의 불송기를 어느 정도 순한 소리로 인식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어의 불송기에 된소리의 특징이 약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약송기의 순한 소리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국어에 있는 불송기음의 된소리 특징 영향 관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에는 파열음과 파찰음 중에서 불송기음인 것만이 된소리이다. 이런 된소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중국어의 거성 불송기 파열이나 파찰음과 유사하므로 중국인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다. 세밀한 구별을 한다면 한국어의 된소리가 조금 더 짧고 촉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빨리’의 [p']와 중국어 ‘빠’의 [p51]음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빠’를 발음할 때에는 성대 윗쪽의 인후벽도 어느 정도 긴장이 된다. ‘빨리’의 [p'a]는 이에 비해서 짧고 힘있게 발음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어 ‘오빠’의 ‘빠’는 어조가 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빠’와 유사하게 들린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중국인들은 연상관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장자’의 뜻으로 한국어 ‘오빠’를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중국인이 한국어의 순한 소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어라는 모국어의 불송기음으로 한국어의 순한 소리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결국 적어도 절반의 불송기음은 한국어의 된소리로 발음되는 셈인데, 예를 들자면 ‘가’가 ‘까’로, ‘바’가 ‘빠’, 또 ‘자’는 ‘짜’로 소리나는 것 등이다. 중국인이 한국어의 순한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이것이 약송기라는 점을 생각하여야만,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에게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원래 송기음이 있는 언어이므로, 기류를 조금만 내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4. 한국어 송기 파열음 파찰음의 강송기 특징

그렇다면 중국어의 송기음과 한국어의 송기음의 비교는 어떠한가? 중한 양국 언어의 송기음이 완전히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어의 송기음은 약하지도 않고, 또한 강하지도 않아서 중성송기에 속하므로 기류는 구강에서 내쉬는 정도가 꼭 알맞다. 예를 들어 ‘怕爸’[pha51]의 [ph]나 ‘茶葉’[tsha35je51]의 [tsh], ‘踏實’[tha55s]의 [th]와 같은 것들의 송기 자음은 양입술 앞의 종이를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이다. 한국어의 송기음기류가 구강에서 나올 때의 기류를 중국어와 비교하면 훨씬 빠르고 강해서 양입술 앞의 종이를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찾다	차
태풍	특식
체육	참
초순	타세요
틀렸어요	천원
포함	창구
채취	치다
커피	폐
프로	특허

이와 같은 예에 있어서의 첫번째 음절 자음도 필자가 한국인의 실제 발음을 조사한 후 선정된 것이다. 한국인이 이런 소리를 발음할 때의 강한 기류는 짧으면서도 힘이 있게 구강에서 나오고, 이들과 중국어의 송기음을 비교하면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한 소리와 강한 소리 및 장단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한국어 “특히”의 [th]와 중국어 “特別”의 [th]를 예로 들면 한국어의 송기음은 분명히 짧고 강하다. 국제음성표기에서는 이런 종류의 파열음과 파찰음을 표기함에 있어 중국어는 뒤에 [h]를 붙이고, 한국어는 뒤에 짧고 작은 송기음을 표시하는 [']를 붙이도록 하여 [h'], 즉 예를 들자면 ㄷ [ch'], ㅌ [th'], ㅋ [kh']와 같이 된다. 즉 한국어의 송기음이 가진 일종의 강송기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경대학의 교직원들은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어 송기음을 발음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들이 한국인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한국인들이 송기음을 발음하는 것이 특이하게도 강한 송기음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중국어의 음높이, 즉 성조가 음위 대립(예를 들면 ‘塔’[ta55]≠‘大’[ta51], ‘寶’[pau214]≠‘報’[pau51])이기도 하지만, 뜻을 구별해 주는 동시에 이러한 구별특징 이외에도 순한 소리와 된소리라는 비구별특징, 즉 수반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은 중국어의 불송기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성조의 차이에 따라 나뉘어진다. 또한 한국어의 순한 소리와 된소리는 음위 대립에 속한다 (예를 들면 ‘달’[dar]≠‘딸’[d'ar], ‘방’[ban]≠‘뺑’[b'an]). 이와 같은 순한 소리와 된소리의 차이가 뜻을 구별해 줄뿐만 아니라, 이런 구별특징의 순한 소리는 원래 약한 송기라는 수반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한국어의 음높이 역시 뜻을 구별하는 수반 특징이 되지 못한다. ‘안 되는데요’의 ‘안’[an]은 낮은 음이나, 혹은 높은 음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어의 ‘俺’[an211]과 ‘安’[an55]은 이러한 음높이의 차이에 의하여 뜻을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송기 이외에 각각 ‘음높이’와 ‘긴장·이완’이라는 서로 다른 어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언어 속에서 세 가지의 대립되는 구별 특징을 가지는데, 양 언어를 비교하여 표 상에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소리 특징	중국어	한국어
pa	불송기	+	
p'a	약한 송기		+
p ^h a	송기	+	
p ^h 'a	강한 송기		+
pa ¹²³⁴	성조	+	
p'a	된소리		+

표에서 중한 양국의 언어의 파열음(파찰음 포함)의 여섯 가지 특징이 상보적으로 드러

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는 불송기 된소리를 자주 내는데, 순한 소리와 된소리의 대립이 있는 언어와 비교를 하여야만이 이런 점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어는 약한 송기의 순한 소리를 종종 내는데, 만약 송기와 엄격하게 대립이 되는 언어와 비교하지 않는다면 이런 점을 쉽게 발견해 낼 수 없다. 각 언어는 모두 상이한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다른 언어와 상보적 특징을 갖추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언어는 다른 언어의 거울이 될 수 있으며, 언어간의 대조를 통하여 각 모국어에 있어서 체현시키기 어려운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중-한 양국 송기음 대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록

- ①북경대학 중문과 現代漢語敎研室 편집 《現代漢語》1993, 북경
- ②북경대학 東語界朝鮮語敎研室 편집 《韓國語基礎敎程》1993, 沈陽
- ③한국 외국어대학 부교수 맹주억 제공
- ④한국 음성학회 회장 이현복 교수 《표준음성학》
- ⑤한국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현복 교수와의 토론에서 인용
- ⑥한국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허성도 교수와의 토론에서 인용